

2025
고2 문학
천재(정)

2025 고2 문학 천재(정) | 2(1)(3) 유자소전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유자소전(兪子小傳)」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빈출되었습니다. 특정 구절에 대한 이해, 「유자소전(兪子小傳)」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유자소전(兪子小傳)」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 놓고, 특정 구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 그러나 어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제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름승이는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유재필(兪載弼)이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솜기로 또래에서 별종맞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 가운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히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자못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서는 숙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썩밭에서 우뚝하였다.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음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쫓대와 나뭇잎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없이 나대어서 남을 폐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에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분

수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선불리 무엇인척하고 으스대는 자는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 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숫지게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떼떼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만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 데에 힘입어 그날로 이자 돈을 놓는 매물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으레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이었다.

그의 됬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체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아닌 독립독행(特立獨行)의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이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이간감? 나 유가여.”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첫마디였다.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였다. 그는 유자(兪子)였다.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불임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의 밑에서 일한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점술인 행세를 하며 군 생활을 편하게 한다. 제대한 뒤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하여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 안에 황금 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아니꼽게 여긴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룹의 노선 상무로 좌천되는데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쑤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덩이 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이 셋방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 한 채 늙고 병든 홀어미와 단칸 셋방을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 버려 어린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 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한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 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두 포대 팔아 주고, 그리고 연탄을 백 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여를 수 있는 한계였다.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백 장을 지게로 저 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 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 드는 것은 만날 일간하여 엮어 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드러났던 것이다.

㉡ **도로 산비탈을 기어올라 가서 굴비 두름을 개안 달게 고양이 안 달게 아무지게 내달아 주면서**

“뵙에 제우 지랑백이 굵으니 뱀이구 수제비구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유. 탄불에 귀 자시던지 뱀솔에 썬 자시던지 하면, 생긴 건 오죽잖어두 뇌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 볼 만혈규.”

쌀이나 연탄을 들여 줄 때는 회사에서 으레 그렇게 돌봐 주는 것이거나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 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가 노선 상무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가 바빴다.

사망자가 난 사고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운전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서 분풀이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앙앙불락하던 차에,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옳거나, 때맞추어 잘 만났다 하고 떼거리로 달려들어 덮어놓고 먹살을 잡으며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였다. 나중에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노라고 사과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해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편이었다.

“야, 너, 흥부는 놀부같이 잘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냐, 뭐여. 못사는 운전수를 동료라구 둔 값에 매품이나 팔며 살거라, 그거여? ㉢ **너야말루 군사 정변이 나서 구정권의 거물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두 볼탱이 한 대 안 쥐백히고 니 발루 걸어 나온 물건인디 말여.** 그런데 이제 와서 녀의 영안실이나 찌웃그리메 장삼이사 헌티 놘 짜 소리 듣는 것두 과만해서 주먹질에 자빠지구 발길질에 엎어지구 허니, 니가 그러구 땡긴다구 상무 전무가 아까징끼값을 물어 주데, 사장 회장이 떨어져 밝힌 단춧값을 보태 주데? 사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버러 이냥 녀의 아랫도리루만 돌며 살라구 가르치셨네, 동경 유학 출신의 아버지가 동네북으로 공매나 맞구 살라구 널 나 놓셨네? 너두 처자가 있는 뭍이 이게 뭐라네? 뭐여? 니

신세두 참…….”

그는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 놓고 바라보며 그런 허허탄탄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세상사란 대저 궁즉통인지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나운 일은 그저 예방이 제일이었다.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봉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실천을 하였다.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빈소의 형식이 불교색인지 기독교색인지도 살피지 않았다. 우선 고인의 영정에 절부터 재래종으로 하고 꿇어앉아, 손수건으로 눈자위를 눌러 가며 눈시울을 훔쳤다. 눈물 같은 건 비칠 생각도 않던 눈도 그렇게 거듭 귀찮게 하면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쉬웠다. 또 그렇게 훔물을 떨어 놓려 있으면 상가의 친인척 중에서 나잇살이나 된 사람이 다가와 어깨를 다정히 흔들며 달래기도 했다.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애통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리 가서 술이나 한잔하라는 것이었다.

㉠ **“에이 죽일 놈덜…… 암만 운전질이나 해 처먹구 사는 막된 것덜이래두 그렇지, 워짜자구 이런 짓을 허는겨. 이에 죽일 놈덜…….”**

천연스럽게 운전수를 나무라며 두툼하게 장만해간 부의를 하고 물러나면, 아까 어깨를 흔들어 달래던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를 하였고, 또 대개는 그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권하는 것이었다.

서로 잔을 건네고 담뱃불을 나누고 하면서 서너순배쯤 하고 나면 궁금한 쪽은 그쪽이라

“실렵니다만, 망인하고는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 신분을 먼저 묻는 것이었다.

그는 그제야 앓음새를 고치면서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이왕에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권커니 잣거니 해온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술상을 걷어차며 대거리를 하려 든다면 이미 경위가 아닌 거였다.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를 놓친 것이었다.

- 이문구, 「유자소전(兪子小傳)」

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유자’의 비범함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 ② ㉡: 그룹 내 ‘동료 운전수’들의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적당주의를 취하지 않는 모습에서 운전 윤리에 대한 ‘유자’의 투철한 주관이 드러나 있다.
- ③ ㉢: ‘반찬거리’라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주려는 ‘유자’의 자상한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 ‘유자’가 사망자의 빈소에서 봉변을 당한 후, ‘동료 운전수’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 회사 측 ‘운전수’의 책임을 언급하여, 봉변을 피하고 원활하게 일을 수행하려는 ‘유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2. 이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 ① 사고를 낸 스페어 운전수집에 찾아가서 쌀이나 연탄을 들여놓는 건 누가 보더라도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이야.
- ② 유자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돌본 건 이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어.
- ③ 유자가 군사 정변 때 끌려갔다가 무사히 풀려난 걸 보면 쿠데타 세력들도 넘어갈 만큼 언변과 불임성이 대단했던 거야!
- ④ 유자가 가해자 집에 가서는 굴비를 달아주고, 피해자 빈소에서는 사고를 낸 죽일 놈들이라고 욕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해.
- ⑤ 유자가 피해자 빈소에서 회사 입장에서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건 너무 가식적이라고 생각해.

【3~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나 어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제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름승이는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유재필(兪哉彌)이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솜기로 또래에서 별종 맞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 가운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히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자못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서는 숙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두렵하고 썩밭에서 우뚝하였다.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음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쫓대와 나뭇잎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없이 나대어서 남을 폐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에 물결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분수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선불리 무엇인척하고 으스대는 자는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 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숫지게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멋멋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마치 ㉡ 말만 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 데에 힘입어 그날로 이자 돈을 놓는 매물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으레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이었다.

그의 됃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체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

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어난 독립독행(特立獨行)의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이간감? 나 유가여.”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첫마디였다.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兪子)였다.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불임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의 밑에서 일한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점술인 행세를 하며 군 생활을 편하게 한다. 제대한 뒤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하여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 안에 황금 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아니꼽게 여긴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룹의 노선 상무로 좌천되는데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쑤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덩이 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이 셋방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 한 채 늙고 병든 홀어미와 단칸 셋방을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 버려 어린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

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 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두 포대 팔아 주고, 그리고 연탄을 백 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여룰 수 있는 한계였다.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백 장을 지게로 저 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 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 드는 것은 만날 얼간하여 엮어 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드러났던 것이다.

도로 산비탈을 기어올라 가서 굴비 두름을 개 안 달게 고양이 안 달게 야무지게 내달아 주면서

“뵙에 제우 지랑뻘이 읊으니 뱀이구 수제비구 건 건이가 있으야 넘어가지유. 탄불에 귀 자시던지 뱀 솔에 찌 자시던지 하면, 생긴 건 오죽잖아두 뇌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 볼 만혈규.”

쌀이나 연탄을 들여 줄 때는 회사에서 으레 그렇게 돌봐 주는 것이거나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 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 그가 노선 상무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가 바빴다.

사망자가 난 사고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운전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서 분풀이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양양불락하던 차에,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

고 하면 대개는 옳거니, 때맞추어 잘 만났다 하고 떼거리로 달려들어 덮어놓고 먹살을 잡으며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였다. 나중에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노라고 사과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해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편이었다.

“야, 너, ㉡ 흥부는 놀부같이 잘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냐, 뭐여. 못사는 운전수를 동료라구 둔 값에 매품이나 팔며 살거라, 그거여? 너야말로 군사 정변이 나서 구정권의 거물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두 볼탱이 한 대 안 쥐백히고 니 발루 걸어 나온 물건인디 말여. ㉢ 그런디 이제 와서 녀의 영안실이나 찌웃그리메 장삼이사헌티 놉 짜 소리 듣는 것두 과만해서 주먹질에 자빠지구 발길질에 엎어지구 허니, 니가 그러구 댕긴다구 상무 전무가 아까징끼값을 물어 주데, 사장 회장이 떨어져 밝힌 단춧값을 보태 주데? 사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버러 이냥 녀의 아랫도리루만 돌며 살라구 가르치셨네, 동경 유학 출신의 아버지가 동네북으로 공매나 맞구 살라구 널 나 놓셨네? 너두 처자가 있는 뭍이 이게 뭐라네? 뭐여? 니 신세두 참…….”

그는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 놓고 바라보며 그런 허희탄식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세상사란 대저 궁즉통인지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나운 일은 그저 예방이 제일이었다.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봉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실천을 하였다.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빈소의 형식이 불교색인지 기독교색인지도 살피지 않았다. 우선 고인의 영정에 절부터 재래종으로 하고 꿇어앉아, 손수건으로 눈자위를 눌러 가며 눈시울을 훔쳤다. 눈물 같은 건 비칠 생각도 않던 눈도 그렇게 거둬 귀찮게 하면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가 쉬웠다. 또 그렇게 흥물을 떨며 놀러 있으면 상가의 친인척 중에서 나잇살이나 된 사람이 다가와 어깨를 다정히 흔들며 달래기도 했다.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애통해한들 무슨 소용

이 있겠느냐,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리 가서 술이나 한잔하라는 것이었다.

“㉔ **에이 죄일 늠덜……. 암만 운전질이나 해 처먹구 사는 막된 것덜이래두 그렇지, 워찌자구 이런 짓을 허는겨. 이에 죄일 늠덜…….**”

천연스럽게 운전수를 나무라며 두툼하게 장만한 부의를 하고 물러나면, 아까 어깨를 흔들며 달려던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를 하였고, 또 대개는 그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권하는 것이었다.

서로 잔을 건네고 담뱃불을 나누고 하면서 서너순배쯤 하고 나면 궁금한 쪽은 그쪽이라

“실렵니다만, 망인하고는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 신분을 먼저 묻는 것이었다.

그는 그제야 앓음새를 고치면서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㉕ **이왕에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권커니 잣거니 해 온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술상을 걷어차며 대거리를 하려 든다면 이미 경위가 아닌 거였다.**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를 놓친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을 작정으로 눈을 홑뜨며 다가오는 이가 있으면, 중간에 서서 불쌍사나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책임 의식이 들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㉖ **그러므로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인 대우를 면치 못했던 것은 노선 상무 초기의 얼마 동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빈소에 드나들다 보면 망자의 가족 가운데 담이 들거나 풍기가 있어서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노인이 많았다. 그런 사람을 보아주려고 침놓는 법을 배웠다.

그는 돌팔이 침쟁이었지만 침통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장지에 따라다니다 보니 뒷자리가 좋으니 나쁘니 하고 상제나 친척들 간에 불통거리고, 좌향이 옳으니 그르니 하고 공원묘지 산역꾼들과 불화하여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지 못하는 집도 많았다. 그래서 ㉗ **그럴 때 쓰려고 책을 구해 들어 풍수지리를 배우고, 쇠(나침반)를 장만하여 좌향을 정해 주기도 하였다.**

그럴 때는 훈련소 신병 시절에 써먹었던 입담도 한몫 거들었다.

풍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지하의 수맥에 대한 이치

도 배워 둘 필요가 있었다. 상도동 상당인지 노량진 상당인지 버드나무 가지로 수맥을 짚는 데에 권위인 신부님을 찾아다니며 수맥을 배우고, 그러는 동안에 천주교에 입문하여 세례를 받기도 하였다.

㉘ **그리고 보면 그의 총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다.**

총수는 유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곧 과장으로 올려 주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승진은 불허하였다.

유자는 십 년이 가도 과장이었다. 그가 자리를 옮기면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만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총수는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 이문구, 「유자소전(兪子小傳)」

3. 윗글의 ㉑~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유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을 물질적 풍요에 집착하는 딸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㉒: 유자가 막 승진했을 무렵에는 사고 처리 업무에 실수가 잦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㉓: 유자는 흥부와 자신을 비교하며 현재 자신의 처지가 흥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㉔: 승진할 수 없는 상황을 수용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식을 쌓는 유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⑤ ㉘: 유자가 총수의 됴됨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㉙~㉛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㉙: 서술자가 인물의 성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㉚: 업무상 맡은 역할로 인해 폭력을 당하는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③ ㉛: 자신이 속한 회사를 욕하여 유가족의 아픔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④ ㉜: 서로 술상을 함께 했지만 유가족들이 유자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하고 있다.
- ⑤ ㉝: 예방책을 통해 초기와 달리 봉분 없이 유가족 방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며 크게는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가치관에, 작게는 등장인물의 의견이나 감정 또는 취향에 공감하는 경험을 한다. 때에 따라 문학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자신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 넓고 좁음, 깊고 얕음 등을 따지며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문학 작품을 평가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공감적 수용, 비판적 수용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 작품을 창의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새로운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고, 재구성 활동을 할 수도 있으며, 작품에 들어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깨우침을 얻을 수도 있다.

- ① '전'의 형식으로 친구의 일화를 써 보려고 하는 것은 창의적 수용에 해당하겠군.
- ② 억울하게 분풀이를 당하는 유자의 처지를 이해한다면 공감적 수용에 해당하겠군.
- ③ 유자처럼 너살 좋은 친구가 있어서 서술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공감적 수용에 해당하겠군.
- ④ 장례식에서 유가족에게 정직하게 정체를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면 비판적 수용에 해당하겠군.
- ⑤ 유자가 비속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이 해학적인 효과를 드러낸다고 이해한다면 비판적 수용에 해당하겠군.

신유형

「유자소전(兪子小傳)」의 내용을 묻는 문제뿐 아니라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어휘의 의미를 묻는 문제, 내용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언의 사용, 삽화적 구성 등의 표현상의 특징을 기억하고 어휘나 관련 사자성어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6~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 **불과** 한 친구였다.

그러나 어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제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름송이는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유재필(兪載弼)이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솜기로 또래에서 별종맛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 **비색**한 가운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히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자못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서는 숙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썩밭에서 우뚝하였다.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은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쫓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없이 나대어서 남을 폐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에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분수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선불리 무엇인척하고 으스대는 자는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 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숫지게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 **어딘지** **뻗뻗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만 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 데에 힘입어 **그날로** **이자 돈을 놓는 매물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오래**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이었다.

그의 됴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체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듯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

품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아닌 특립독행(特立獨行)의 돌출이요, 이른바 ㉠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라고 말한 선비적인 ㉡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이간감? 나 유가여.”

그가 나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첫마디였다.

㉢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兪子)였다.**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불임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의 밑에서 일한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점술인 행세를 하며 군 생활을 편하게 한다. 제대한 뒤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하여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 안에 황금 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아니꼽게 여긴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룹의 노선 상무로 좌천되는데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

㉣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쭉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덩이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이 셋방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 한 채 늙고 병든 홀어미와 단칸 셋방을 살

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 버려 어린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 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한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식구가 ㉧ **단순하면** 쌀을 한 말 ㉨ **팔아** 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두 포대 팔아 주고, 그리고 연탄을 백 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여탈 수 있는 한계였다.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백 장을 지게로 저 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 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 드는 것은 만날 ㉩ **얼간하여** 엮어 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드러났던 것이다.

도로 산비탈을 기어올라 가서 굴비 두름을 개 안 달게 고양이 안 달게 야무지게 내달아 주면서

[A] “뵙에 제우 지랑백이 읊으니 뱀이구 수 제비구 건건이가 있으야 넘어가지유. 탄불에 귀 자시던지 뱀술에 썬 자시던지 하면, 생긴 건 오죽잖어두 뇌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 볼 만할규.”

쌀이나 연탄을 들여 줄 때는 회사에서 으레 그렇게 돌봐 주는 것이거나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 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가 노선 상무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가 바빴다.

사망자가 난 사고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운전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서 분풀이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 앙양불락하던** 차에,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옳거니, 때맞추어 잘 만났다 하고 떼거리로 달려들어 덮어놓고 먹살을 잡으며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였다. 나중에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노라고 사과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해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편이었다.

[B] “야, 너, 흥부는 놀부같이 잘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냐, 뭐여. 못사는 운전수를 동료라구 둔 값에 매품이나 팔며 살거라, 그거여? 너야 말루 군사 정변이 나서 구정권의 거물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두 볼탱이 한 대 안 쥐백히고 니 발루 걸어 나온 물건인디 말여. 그러디 이제 와서 녀의 영안실이나 짜웃그리메 장삼이사헌티 놉 짜 소리 듣는 것두 과만해서 주먹질에 자빠지구 발길질에 엎어지구 허니, 니가 그러구 땡긴다구 상무 전무가 아까징끼값을 물어 주데, 사장 회장이 떨어져 밟힌 단춧값을 보태 주데? 사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버러 이냥 녀의 아랫도리루만 돌며 살라구 가르치셨네, 동경 유학 출신의 아버지가 동네북으로 공매나 맞구 살라구 널 나 놓셨네? 너두 처자가 있는 뭉이 이게 뭐라네? 뭐여? 니 신세두 참…….”

그는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 놓고 바라보며 그런 허희탄식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세상사란 대저 궁즉통인지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나운 일은 그저 예방이 제일이었다.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봉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실천을 하였다.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빈소의 형식이 불교색인지 기독교색인지도 살피지 않았다. 우선 고인의 영정에 절부터 재래종

으로 하고 꿇어앉아, 손수건으로 눈자위를 눌러 가며 눈시울을 훔쳤다. 눈물 같은 건 비칠 생각도 않던 눈도 그렇게 거둬 귀찮게 하면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가 쉬웠다. 또 그렇게 흥물을 떨어 놓려 있으면 상가의 친인척 중에서 나잇살이나 된 사람이 다가와 어깨를 다정히 흔들며 달래기도 했다.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애통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리 가서 술이나 한잔하라는 것이었다.

“에이 적일 늬덜……. 암만 운전질이나 해 처먹구 사는 막된 것덜이라두 그렇지, 워짜자구 이런 짓을 허는겨. 이에 적일 늬덜…….”

천연스럽게 운전수를 나무라며 두툼하게 장만해 간 부의를 하고 물러나면, 아까 어깨를 흔들며 달래던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를 하였고, 또 대개는 그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권하는 것이었다.

서로 잔을 건네고 담뱃불을 나누고 하면서 서너순배쯤 하고 나면 궁금한 쪽은 그쪽이라

“실렵니다만, 망인하고는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 신분을 먼저 묻는 것이었다.

그는 그제야 앓음새를 고치면서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이왕에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권커니 잣거니 해 온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술상을 걷어차며 대거리를 하려 든다면 이미 경위가 아닌 거였다.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를 놓친 것이었다.

- 이문구, 「유자소전(兪子小傳)」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언과 비속어를 활용해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 간의 긴장감을 점차 고조하고 있다.
- ③ 상세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삽입하여 갈등의 발생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적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7. 다음 <보기>는 [A]에 대한 감상이다. 어휘나 어법, 감상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는 표준어로 바꾸면 “부엌에 겨우 ① **간장** 밖에 없으니, 밥이건 수제비건 간에 반찬이 있어야 드시지요. 연탄불에 ② **구어** ③ **자시든지** 밥솥에 썰서 드시면, (이 굴비가) 생긴 건 변변치 않아도 어르신 입맛에 그럭저럭 드셔 볼 만할 거예요.”이다. 표준어 표현은 깔끔하고 정중하다. 하지만 구수한 방언 표현이 주는 순박한 인정과 ④ **생생한 현장감**은 도저히 살릴 수 없다. 이 작품에 사용된 ⑤ **충청도 사투리**의 묘미는 인간 유재필의 인간미 바로 그 자체이다.

8. [B]에 대해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문형 어미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답답하고 억울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화자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로, 자신의 아픔을 해학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 ③ 다른 인물과 자신의 처지를 대조하여 자조적인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④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말의 운율감을 살린 판소리 사설 투의 느낌이 난다.
- ⑤ 불합리한 업무를 지시하고 비인간적 처우를 하는 회사를 풍자하고 있다.

9. 밑줄 친 ㉠~㉣ 중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는?

- ① ㉠ ② ㉡ ③ ㉢
- ④ ㉣ ⑤ ㉤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유자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들과 포용하는 유자의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씨가 드러난다.
- ② ㉡: 인물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인용한 표현으로 유자의 어진 인품이 드러난다.
- ③ ㉢: ‘유가’가 아닌 ‘유자’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뚜렷하고 쫓대 있는 유자의 면모가 드러난다.
- ⑤ ㉤: 사비(私備)를 들여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유자의 모습을 통해 기업에서 고용하고도 돌보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매정한 현실이 드러난다.

11.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
- ② ㉡: 운수가 팍 막힘.
- ③ ㉢: 자기의 주장이 있는 의견
- ④ ㉣: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길
- ⑤ ㉤: 타고난 성품이나 소질

12. 이 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는 작품 속에서 인물을 관찰하고, 자신의 평가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② 부조리한 상황에 내몰린 인간의 내면을 밀도 있게 묘사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해 가는 인물의 삶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인물과 시대와의 불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복잡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⑤ 서술자는 인물의 행위를 통해 부정적인 세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13.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인물의 분열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전통적 전(傳) 양식을 계승하였으며 그중 한 구성 요소인 출생과 가계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 ⑤ 문장을 장황하게 표현하는 문체를 사용하여 등장인물의 특성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방언을 사용하여 토속적인 정감과 사실성,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ㄴ.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고백하며 사건의 전모를 보여주고 있다.

ㄷ. 다양한 장면의 제시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ㄹ. 구체적인 일화를 제시하여 인물의 특징과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인 소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유자'의 변화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유자'에 대해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며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내화와 외화의 서술자를 달리하는 액자식 구성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많은 어구를 이용하여 장황하게 표현함으로써 '유자'의 다각적인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의 관찰 대상을 '유자'에서 '운전수'로 바꾸어 두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㉔: '유자'는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잘못된 것도 없이 업무상 맡은 역할로 인해 폭언과 폭력을 당하는 처지를 스스로 한탄한다.

① ㉓: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독자가 '유자'의 인물됨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② ㉒: '유자'는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한다.

③ ㉑: '유자'는 단순히 쌀과 연탄 같은 필수품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찬거리'까지 챙겨 주는 세심함을 보여 준다.

⑤ ㉐: '유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수의 회사에서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봉변을 당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속한 회사를 나무라는 말을 한다.

2. 정답 ③

유자는 무소불위한 공권력하에서도 화를 피할 만큼 처세술이 좋다.

① 유자가 사고를 낸 스페어 운전수의 집에 찾아가 도움을 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이타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② 유자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는 근거가 글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④ 유자가 가해자 집에 가서 굴비를 달아주고 피해자 빈소에서 운전수를 꾸짖는 행동은 각 상황에 적합한 처세술을 활용한 것이다.

⑤ 유자가 피해자 빈소에서 흘린 눈물은 사고를 낸 운전수에 대한 꾸짖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는 피해자 가족의 감정을 헤아리고자 한 것이다.

3. 정답 ③

㉔: 유자가 흥부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흥부보다도 열악한 상황임을 자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① ㉓: 유자가 그릇된 것으로 여기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구두쇠에 빗대어 표

현하였다.

② ㉒: 유자가 봉변을 당한 이유는 유가족에게 분풀이를 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④ ㉑: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자의 성품을 보여 준다.

⑤ ㉐: 유자에 대한 총수의 평가를 통해 유자가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음을 나타낸다.

4. 정답 ④

㉐: 서로 술상을 함께 한 뒤라서 유가족들이 유자에게 폭언을 내뱉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못한다는 뜻이다.

① ㉑: 서술자는 유자의 악력을 소개하며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㉒: 유자는 업무상 맡은 역할로 인해 폭언과 폭력을 당하는 처지를 한탄한다.

③ ㉑: 유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수의 회사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유가족의 아픔에 동조하면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

⑤ ㉑: 유자가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초기와 달리 봉변 없이 원활하게 일을 수행하게 된 변화가 서술된다.

5. 정답 ⑤

유자가 비속어를 사용한 효과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공감적 수용이다.

① '전'의 형식으로 새로운 작품을 내놓는 것은 창의적 수용이다.

② 인물의 심정에 이해하므로 공감적 수용이다.

③ 서술자를 통해 작가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공감적 수용이다.

④ 인물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며 읽는 것은 비판적 수용이다.

6. 정답 ①

방언과 비속어를 활용해 독자가 인물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작품에 해학적 분위기를 더하였다.

② 유자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내적 독백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유자의 혼잣말이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아니다.

③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변화를 보여 준다.

- ④ 과거의 사건이 삽입되었으나 갈등의 원인을 다 각도로 조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인물의 삶을 보여 주는 삽화를 나열하여 인물의 품성을 보여 준다.

7. [정답] ②

구어: '구워'가 맞는 표현이다.

- ① 간장: '지랑'은 '간장'의 방언이다.
- ③ 자시든지: '먹다'의 높임 표현이므로 고칠 필요가 없다.
- ④ 생생한 현장감: 방언을 살려 쓰면 향토적인 정서와 현장감을 살릴 수 있다.
- ⑤ 충청도 사투리: 작가 이문구는 충청도 방언을 작품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8. [정답] ⑤

업무상 맡은 역할로 인해 피해 보상을 쉽게 받지 못하는 현실을 자조적으로 탄식하는 것이다.

- ① 유가족의 분풀이 대상이 되는 억울함을 의문형 어미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한탄하고 있다.
- ② 자신이 맡은 역할로 인해 억울하게 분풀이를 당하는 아픔을 해학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 ③ 흥부와 자신의 처지를 대조하여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다.
- ④ 판소리 사설 투처럼 말의 운율을 느끼게 하는 대구 표현을 사용한다.

9. [정답] ②

㉠: '식구나 구성원이 많지 않아서 홀가분하다.'라는 뜻의 '단출하면'으로 바뀌어야 한다.

- ① ㉡: '벌이가 마음에 차거나 들지 않아 만족스럽지 않다.'의 의미로 적절하게 쓰였다.
- ③ ㉢: '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의 의미로 적절하게 쓰였다.
- ④ ㉣: '소금을 약간 뿌려서 조금 절이다.'의 의미로 적절하게 쓰였다.
- ⑤ ㉤: '매우 마음에 차지 않거나 야속하게 여겨 즐거워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로 적절하게 쓰였다.

10. [정답] ①

㉞: 유자가 그릇된 것으로 여기는 행동과 그러한 사람을 나열하여 유자의 'ض대'와 '주견'을 보여 준다.

② ㉠: 한시를 인용하여 유자가 어진 인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감동을 주었음을 나타낸다.

- ③ ㉡: 친구를 두고 '유가'가 아닌 '유자'라고 말하면서 친구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낸다.
- ④ ㉢: 운전 윤리에 대해서도 투철한 주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본 유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⑤ ㉣: 자신의 용돈을 털어서라도 남을 돕는 유자의 모습과 기업이 고용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매정한 현실을 대조한다.

11. [정답] ④

㉧ '덕량'은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씨와 생각.'을 의미한다.

- ①, ②, ③, ⑤는 사전적 의미가 적절하다.

12. [정답] ⑤

유자의 따뜻한 마음씨가 드러나는 행적과 대조되는 기업의 현실을 통해 세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① 서술자는 유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통해, 인물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② 유자의 내면을 밀도 있게 묘사하기보다 그의 행적을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변화하는 면모를 보기보다 타고난 녀석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물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인물 간 갈등보다는 유자의 행적에 집중한다.

13. [정답] ⑤

많은 어구를 이용한 만연체 문장을 통해 인물과 상황의 복잡한 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①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지 않는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며 인물의 분열된 자의식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 ③ 인물 간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서술하기보다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 ④ 전(傳) 양식의 서술 구조 중 출생과 가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의~바탕이었다'에 해당한다.

14. [정답] ④

많은 어구를 이용한 만연체 문장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상황을 다각적으로 묘사한다.

- ① '유자'의 변화된 성격이 아니라 너그러운 인품을 드러내는 일화를 나열하고 있다.
- ② 서술자는 '유자'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드러낸다.
- ③ 액자식 구성은 아니다.
- ⑤ 관찰 대상이 '운전수'로 바뀌지 않고 '유자'에 고정되어 있다.

15. 정답 ②

ㄱ. 충청도 방언을 사용해 향토적인 정서와 생생한 현장감을 드러낸다.

ㄴ. 유자의 인품을 보여 주는 구체적 일화를 제시하여 유자의 성격을 부각한다.

ㄷ, ㄹ. 서술자의 직접 고백이나 심리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